땅은 우리의 목숨!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강상원

평택시는 총면적 452.31㎢(약 1억3,700만 평)에 인구수 36만2천여 명(2003. 7.31기준), 2읍 · 7면 ·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최남단의 도농복합도시이자 군사도시이다. 평택을 '군사도시' 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 60년 동안 주둔해 온 미군기지와 주한미군 때문이다.

평택의 미군기지는 신장동, 서정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210만 평 규모의 Osan Air Base(일명 K55/이하 송탄기지)[1]와 팽성읍 일대에 위치한 150만 평 규모의 Camp Humpleys(일명 K6/이하 팽성기지), 사격훈련장, 탄약고, 통신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개의 미군기지는 457만 8천 평의 공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1만2천91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

1 대다수 국민들이 Osan Air Base라는 기지명칭으로 인해 마치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평택과 인접한 오산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 이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핵심적인 공군기지이다.

평택이 '퇴폐향락문화에 찌든 군사도시' 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된 기구한 역사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일본군에 의해 군사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조성된 30~40만 평 정도의 군사시설은 일제가 쫓겨나가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대규모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기지확장으로 인해 팽성읍의 대추리, 안정리, 두정리, 함정리, 내리, 동창리와 서탄면의 야리, 적봉리, 신야리, 가마굴 등의 수많은 주민들은 보상은커녕 생필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고향에서 쫓겨났다.

삶의 터전을 강탈당한 주민들은 낮에는 미군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활주로, 격납고, 막사 등을 짓는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밤에는 미군의 불도저에 산산조각난 지붕, 서까래, 살림살이들을 지게에 싣고 옮겨나르며 지금의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조상의 묘를 이장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쫓겨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미군기지를 향해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한을 안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고향을 갉아먹어 온 미군기지는 평택 전체넓이의 5%를 차지하며 미국의 핵심적 동북아시아 전략기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60년 동안의 피해 실상

지난 60년 동안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은 수질과 토양,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며 평택시민들의 삶을 파괴해 왔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주한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과 보상의 의무가 없다' 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땅이라 할지라도 일단 넘겨주기만 하면 그만인 셈이다.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으로부터 가해진 지난 세월의 고통과 피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평택시민들의 생존권이 어떻게 파괴되어 왔는지 밝히고자 한다.

1. 미군의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과 토양의 오염

장등리, 금각리를 지나면 작은 다리가 나온다. 지역주민들은 이 다리를 '석유 다리' 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송탄기지에서 이 '똘' (도랑)을 따라 석유가 쉴새없이 흘러내려 왔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 석유를 떠다가 등잔불을 켜기도 하고, 장에 내다 팔기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떠내려 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평택시가 이 똘을 이따금씩 정비하지만, 역겨운 냄새는 코를 찌르고, 시커멓게 썩은 물은 각종 생활 쓰레기들을 떠안고 서해로 흘러 나간다.

지난 1997년 경기도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송탄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는 수질 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40ppm의 3배가 넘는 131.6 ppm이나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송탄기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양은 5천 톤이나 되는 반면, 정화할 수 있는 물의 양은 3천400여 톤에 지나지 않아, 1천600여 톤의 오·폐수는 정화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 보내기 때문이다.

〈표 1〉 미군기지 오·폐수처리현황

송 탄 기 지			팽 성 기 지		
처리 용량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 용량	발생량	처리 방법
3,400㎥/일	5.000㎥/일	단순침전방식	2,800㎥/일	4,800㎥/일	회전원판접촉법

출처 : 「미군기지평택이전의 문제점과 공론형성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2003,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그뿐만이 아니다. 송탄기지는 공군기지로서 유류 저장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가 자주 벌어진다. 기름유출 사고는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복구하는 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이 논과 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지난 2000년 7월 송탄기지에서는 항공유 약 3천700갤런(14.7㎘, 70드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평택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기름유출을 확인하고 '오일 펜스'를 설치한 후 흡착포로 80~90 *l* 가량의 기름을 제거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기지내 격납고가 침수되면서 정비 기자재에 묻어 있던 기름이 빗물과 함께 오·폐수 방류구를 통해 흘러갔다'고 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계속되는 언론 보도 등 문제가 확산되자, 그제서야 '폭우로 인해 기지 내 2개의 지하 연료탱크에서 고질의 항공유인 JP-8 연료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주한미군의 사고 처리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다.

이런 대형사고 외에도 기름유출 사고는 연중행사처럼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기름유출은 주한미군 송유관에서도 자주 발생되는데, 국방부가 1996년 미국 〈튜보스코프 파이프라인 서비스〉에게 주한미군 송유관 전 구간의 부식상태에 대해 용역조사를 의뢰한 결과 충북 제천에서 평택 사이 105㎞ 구간의 120곳, 안정리에서 송탄 사이 19㎞ 구간의 10곳, 송탄에서 서울 강남 사이 50㎞ 구간의 84곳 등의 송유관에서 송유관 두께의 20% 이상이 부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노후된 송유관으로 월 평균 104만 배럴(약 80만 드럼) 정도나 흘러나가고 있으니 지금도 어느 곳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우리의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2. 비행기 폭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파괴

경기 북부지역이 전차·탱크·폭격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평택지역은 각종 미군 비행기(전투기·헬기 등)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송탄기지 정문에서 담장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구장터라는 마을이 보인다. 말 그대로 옛날 장터라는 뜻이지만 옛 명성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송탄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가 돼 버렸다. 바로 전투기 소음 때문이다.

송탄기지에서 운행되는 각종 비행기의 94.4%(「항공기 소음 진동조사용역 보고서」, 2003, 평택시)가 이 마을로 착륙한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면 옆사람과의 대

화는 중단해야만 한다. 아무리 소리질러 말해도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의 굉음은 구장터만이 아니라, 송탄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의 소원이 '나에게 조용한 밤을 달라' 는 것이겠는가!

팽성기지 주변도 다르지 않다. 블랙호크 및 아파치헬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송화 1 · 2리 일대는 헬기의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극심한 동네인데, 헬기가 뿜어대는 소음과 진동에 기와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내려앉아 비라도 오는 날이면 빗물이 흘러들어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 지붕개량작업을 하고 있다.

일반 주거지역의 소음도 환경 기준치는 주간의 경우 50~55db, 야간은 40~45db이며 도로변의 경우 주간은 65db, 야간은 55db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치는 평택시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표 2〉 소음수준에 따른 인체의 영향

소음(db)	소 음 수 준	영 향
60	탈수기	식욕감퇴, 수면장애
70	욕조 물 받는 소리	혈압상승, 집중력 저하
75	오토바이	원활한 대화 불가
80	고양이 울음소리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
85	피아노	심장기능 저하, 평행력 교란
90	개 짖는 소리	청력장애, 귀울림, 두통

출처 : 「미군기지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기지환경투어 최종보고서」, 2001, 평택의제21

얼마전 (주)경호엔지니어링이 평택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1년 동안 (2002.12.10~2003.12.9) 미군기지 주변 15개 지역(송탄기지 9곳, 팽성기지 6곳)에 대한 소음 · 진동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송탄기지 주변의 소음은 104.9db~67.4db, 팽성기지주변은 88.3db~69.1db로 일반주거 지역의 소음도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비행기는 낮시간에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밤 11시~새벽 4시까지도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운행에 대한 주민감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표 3〉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소음조사 결과

구 분	측정 지점	소 음 도(db)	운행횟수
K55기지 주변(9곳)	구장터	97.8	54~123회 /1일
	신장1동	91.6	
	회화리	89.9	
	황구지리	87.0	
	신리	85.4	
	장등1리	75.9	
	서정동	75.8	
	금각1리	75.7	
	태광중고교	67.4	
K6기지 주변(6곳)	송화2리	83.6	40~85회 /1일
	송화1리	71.4	
	대추리	67.7	
	안정4리	63.0	
	동창리	60.5	
	함정1리	59.1	

출처 : 「항공기 소음진동조사용역결과보고서」, 2003, 평택시

현재 '미군비행기 소음피해 송탄 · 평택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소음피해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정부와 미군당국에 항공기 운행과 정비행위를 야간에는 금지할 것과 소음 · 진동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3. 미군의 각종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

송탄 미군기지는 진위천변 2만여 평에 토사와 폐아스콘, 건축 폐기물 같은 것을 80년대 중반부터 15년 넘게 불법 매립해 왔다. 그 양은 2만 톤이 넘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택시와 환경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미군은 보란 듯이 불법 매립행위를 계속했다.

미군의 이런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공무' 중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조차 없다는 SOFA협정의 불평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군은 오만할 대로 오만하고 반면 지자체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의지는 약할 대로 약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평택시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4. 미군의 불법 조류사냥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미군이 파괴하는 것은 땅과 물과 공기뿐만이 아니다. 미군은 야생조류 불법사냥도 서슴지 않는다.

2001년 1월 용산기지 소속 R(44) 대령을 비롯한 미군 소속 영관급 장교 3명과 예비역 미군 중령이 송탄기지 주변에서 수렵 허가를 받지 않고 조류사냥을 하다가 밀렵 감시단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들은 송탄기지에서 1㎞가량 떨어진 진위천 주변에서 엽총으로 청둥오리와 기러기 같은 조류를 사냥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탄 54발과 죽은 청둥오리, 기러기 등 조류 90여 마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번 A-10 공격기 추락 사고도 있고 해서 전투기 비행에 장애가 되는 새들을 없애는 차원에서 사냥을 했다"며 가당치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말만 되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미군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행렬과 무번호판, 무면허, 무보험 미군차량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무법천지에 37만 평택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현행 SOFA협정으로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조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없이는 문제해결 자체가 난망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활동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으로부터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온갖 방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난 2002년 주한미군은 경기 북부지역의 훈련장 4천여만 평을 반환하고 평택을 중심으로 154만 평을 신설, 확장한다는 계획 즉,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icipation Plan)을 발표하였다.

평택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이 협정으로 인해 평택지역에만 75만 평에 달하는 토지가 추가 공여될 위기에 놓여진 것이다.

이것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으며, 평택지역의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그간 환경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에 결합하여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확장예정부지 땅 한 평 사기 시민운동(이하 평화지주운동)' 을 시작하였다. 6개월간의 선전과 홍보를 통해 605명의 참가자 모집을 마무리하여 최종 등기만을 앞두고 있다.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남도의 끝 제주도에서부터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벽을 넘었으며, 자식에게는 군사도시를 물려줄 수 없다며 아이의 이름으로 구입한 노동자에서부터, 땅을 지키는 것이 농업을 기키는 것이라며 참여한 굵게 패인 주름살의 농민, 지난해 효순이와 미선이의 끔찍한 죽음을 보며 우리 자식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반찬값을 아끼며 모았던 비상금을 선뜻 내놓으시던 주부

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시민 자전거달리기대회와 2만 명에 달하는 평택시민들의 서명, 그리고 크고 작은 집회를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던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03년 4월 주한미군은 전국에 산개해 있는 미군기지를 2개의 중심기지(HUB기지)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평택 지역과 대구 · 부산 지역으로 모든 기지를 통 · 폐합하겠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 주한미군의 핵심부대는 평택으로 총집결시키고, 대구 · 부산 지역은 유사시(전쟁발발시) 외국에서 공수되는 미군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미군기지확장이 아닌 전국에 산개해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평택에 총집결시키겠다는 '미군기지재배치계획' 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보수정치권에서조차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며 미2사단의 한수이남이전에 강력히 반발하며 난항을 겪던 중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서울 용산기지와 2사단의 이전터로 평택지역에 300여만 평을 제공하기로 한미 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당초 평택의 기존부지 외에 추가로 540만 평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인구밀집과 주민 피해, 고속도로 통과지역 확보 등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여 310만 평 수준으로 낮추는 데 사실상 합의했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만 무성했던 용산기지와 2사단의 평택이전계획에 대한 합의점이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서 도출된 것이다.

애초의 규모보다 축소되었다며 자신의 치적인 양 떠벌리지만 대체부지 규모와는 상관없이 미군기지 평택총집결계획은 평택시와 시민의 미래를 송두리채 앗아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이 전격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대책위의 활동에서 확장예정지역으로 알려진 팽성읍과 서탄면 일대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다. 이미 일본군과 미군으로부터 3~4차례씩 고향에서 쫓겨나와 지금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처럼 당하지 않겠다며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총집결의 배경과 본질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은 한국민들의 민원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미국의 신군사 전략에 의한 필요에 의해 계획 ·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1. 군사전력증강을 통한 미국의 패권질서 강화-신냉전 조성

지난 6월 조영길 한국 국방부 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강력하고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미국은 향후 4년간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1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였다. 이미 신형 페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인 PAC-3가 평택을 비롯해 수원, 군산지역에 배치되었으며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Missle Defence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된 18조9,412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통일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국민의 혈세가 남과 북의 긴장만을 더욱 격화시키는 전쟁무기 구입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동북아시아 지역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앙일보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기사에서 향후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분쟁이나 안보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도하

였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방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엉뚱한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계획하고 개입하는 온갖 분쟁으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의 전력증강과 곧이어 발표된 러시아의 미사일부대 증설의 소식은 군비경쟁, 신냉전 질서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계획

9·11사태 이후 미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가 아닌 위험이 예상되는 세력 또는 국가에게는 선제공격까지 서슴지 않겠다는 신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아프카니스탄, 수단,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러했고 이제 한반도에서의 대북선제공격이 그것이다.

전세계 언론이 이라크 다음으로 한반도를 지목하는 것을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기에는 북미 간의 긴장관계가 심상치 않고, 대북선제공격 작전인 5027 · 5030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선제공격은 공군과 해군력에 주로 의존하며 미국이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아 휴전선 부근의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재배치를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단계로 보는 시각이 더욱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 재배치를 막는 평택시민들의 싸움은 지역이기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볼 문제가 아니며,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운동이요, 세계평화를 옹호하는 운동으로 4천5백만 전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마치며

평택시와 시민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들과의 단 한 번의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으로 처리하는 데 평택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행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는 '국방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 오로지 토지수용을 위한 주민설득작업에 도움을 요청할 뿐이다.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정부가 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으니 그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이 시각에도 국방부로부터 토지수용 위탁업무를 수주받은 토지개발공사, 한국감정평가원의 관계자들과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아마도 국방부의 토지수용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이 충돌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안보' 와 '한미동맹' 을 이유로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지만 수십 년 전의 무지랭이 농사꾼, 힘 없는 국민이 아니다.

부안 군민들의 항쟁은 '민' 을 무시한 정부정책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 주지 않았는가! 제2의 부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팽성읍, 서탄면 주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미대사관, K55, K6기지를 밥먹듯이 오르내리며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단 한 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 , '땅은 우리의 목숨이다. 반드시 지켜낸다' , '땅 도적놈들아, 물러가라!' 고 적힌 오색의 깃발은 한맺힌 주민들이 이 싸움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이제 대보름이 되어도 쥐불놀이를 할 땅마저 없어질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팽성읍과 서탄면 일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아무리 미국과 정권의 힘이 강대하더라도 민이 뭉쳐 싸우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는다. 역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 소속 단체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농민회 평택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평택시을지구당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민주노동자회 평택새물결청년회 평택흥사단 평택환경운동연합 청년21 일사랑노동자회 평택노점상연합회 평택노동자의힘 중앙대학교총학생회 평택시민아카데미

• 2003년 대책위 주요 활동

효순이 미선이 추모 및 SOFA개정운동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서탄면 금각리 605평 한평사기 운동
각종 중소규모 집회 (국방부, 미8군사령부, K55 및 K6기지 앞 등)
소식지 발송 및 대시민용 선전물 제작 및 배포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각종 토론회 (내부토론회 2회 및 대중토론회 2회씩 진행)
팽성대책위 발족 및 연대사업
SCM(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규탄 투쟁
미군기지 없는 평택만들기 〈2003 평화문화한마당〉 개최
〈미군기지평택총집결저지 범국민궐기대회〉 개최
각종 기자회견 및 정치인 면담추진
기지순례 추진

• 2003년 대책위 활동 일지

1월 10 케익타운 앞 촛불추모제 / 24 송탄터미널 촛불추모제

2월 12 평택농민회와 간담회 / 25 촛불추모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3월 6 1차 목요선전 / 13 2차 목요선전 / 16 농민한마당 참가 (반전사진전개회) / 18 용산기지평택이전촉구결의 경기도의회 규탄집회 참가 / 19 한나라당 점거농성 / 20 3차 목요선전 / 21 촛불추모제 / 28 촛불추모제

4월 4 정장선 국회의원 규탄집회(파병) / 10 반전집회 / 20 기지대책위 못자리 농활

5월 6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제출 / 9 미용산사령부 앞 팽성주민과 1차 연대집회 / 22 목요실천

6월 4 팽성주민 간담회 / 13 1주기 촛불추모제(송탄터미널) / 23 기자회견

7월 2 서탄면 금각리주민 간담회 / 4 미군기지확장반대 송탄주민모임 참석 / 6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준) 발족식 참가 / 9 미군기지 이전반대 집회 / 15 미대사관 앞 열린마당 집회 참가 / 16 K55 앞 경기지역제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집중선전전 진행 / 19 미군기지 없는 평택만들기 2003 평화문화한마당 진행 / 27 정전협정 50년 평화협정 체결촉구 임진각 순례 / 29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발족식 참가

8월 7 통일연대 선봉대 평택입성 K6 앞 집회 / 10 노동자통일선봉대 평택입성 K55 집회 / 11 경찰서장 항의방문 / 16 일본 평화운동가 평택 방문 / 28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민 궐기대회 참석 / 29 미군기지 집중선전

9월 2 미군기지토론회 (청소년문화센터) / 3 국방부 상경투쟁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4차회의 규탄) / 19 미군기지대책위 후원의 밤 (비전부페) / 22 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 / 26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 대토론회 / 27 성공회대 학생 대추리 방문 기지순례

10월 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 규탄집회 / 8 국방부 앞 집회 / 10 경기도경제특구공대위 토론회 참석(미군기지발표) / 12 평택대책위 가을농활 / 14 미대사관앞 열린공원 집회 참가 / 17 집중선전 / 20 집중선전 / 22 집중선전 / 23 쌍용자동차 출근선전 / 24 집중선전 / 27 김선기시장면담 / 28 이익재 시의장 면담 / 29 정장선 국회의원 면담 / 31 총궐기대회

11월 1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0주년대회 참여 / 3 팽성대책위 단합대회 참가 / 16 럼스펠드방한 규탄기자회견(성남비행장) / 17 럼스펠드방한 및 SCM 규탄 서울 상경투쟁 / 18 서울 상경투쟁 / 19 평택농민 서울 상경투쟁 / 26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회의 기지순례

12월 1-2 미군기지 국제회의참가 / 7 팽성대책위 보름행사

강상원 tico1031@hanmail.net | 평택민주노동자회 회장으로 있으며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